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 수형자 '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명 등 총 59명 입상
- 교도소 담장 넘어선 도전, 금빛 성과로 이어져

교정시설 직업훈련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들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 4. 6.(월) ~ 10(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참가하여,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 62명 입상(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우수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져,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주 최)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주 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개최지) 인천광역시 (기 간) '26. 8. 22.(토) ~ 8. 28.(금), 7일간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땀과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빈 일자리(사회 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 업종 : 용접, 간병인 양성 과정

** 인공지능(AI) 분야 : 지능형 홈 관리사, 스마트팜 과정

붙임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수상작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책임자	과 장	서호성 (02-2110-3403)
		담당자	교정관	서호성 (02-2110-3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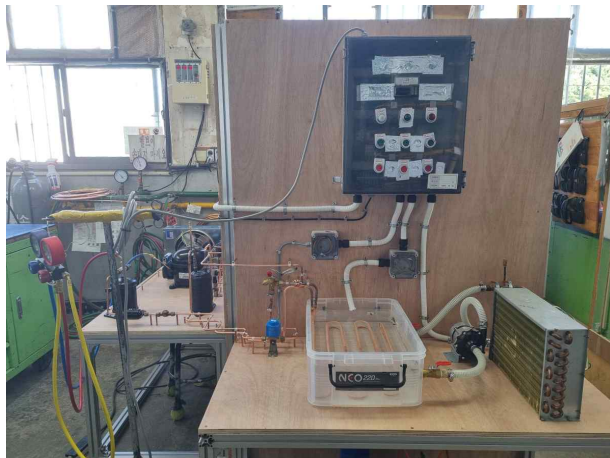




목공 직종(금상, 화성직훈교)



보석가공 직종(금상, 군산교)



냉동기술 직종(금상, 대전교)



목공 직종 경기 장면(금상, 목포교)



배관 직종 경기장면(금상, 순천교)



자동차차체수리 경기 장면(금상, 광주교)